

2019학년도 수능 11월15일 시행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한국사 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5일 실시되는 2019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8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8월23일부터 9월7일까지 12일간으로 성적표는 12월5일 배부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19~23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

내달 23일부터 원서접수...성적표 12월 5일 배부 EBS 연계율 70%...한국사 미응시시 수능 무효

불을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영어,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통지표에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만 표기되고 표준점수는 적히지 않는다. 원접수(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으로 9개 등급이 10점 간격으로 나뉜다.

EBS 수능 연계율도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는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시험지구는 지난해보다 1개 늘어난 총 86개가 운영된다. 경남 양산에 시험지구가 신설됐다. 제주·서귀포 지구의 번호는 각각 94-06, 95-06으로 변경된다. 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등이다. 시계는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전자시계와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몸캠 피싱’ 2년사이 1234건으로 증가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로 적발된 사건은 경찰청 조사결과 지난 2015년에 102건이었지만 2016년에 1198건, 2017년에 12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몸캠피싱은 채팅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몸캠을 확보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더 심한 음란행위, 성관계 등을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들은 알몸채팅 등 채팅과정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소리가 안 들린다’ 등의 이유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한 뒤, 해킹으로 피해자의 음란행위 영상과 자인 연락처를 빼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많다.

경찰은 몸캠 피싱은 성범죄 피해로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엄정 처벌하고 몸캠이 저장된 기기는 물소해 폐기하는 등 사후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해 받은 경우는 성적 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특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해당돼 각각 3년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분수에 더위 식히는 비둘기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오른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분수대에서 비둘기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찜통 통학버스 원생 혼수상태’ 유치원 시설폐쇄 위협

광주고법, 시설 폐쇄 적법 원심 판결 취소

폭염 속 ‘찜통 통학버스’에 유치원 원생을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 명령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환)는 해당 유치원 원생 A 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치원이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위험한 점이 많고, 특히 중대한 과실(유치원생 혼수상태)이 있어 폐쇄가 적법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가 원장으로 있던 유치원 원생 B(당시 3세) 군은 2016년 7월29

일 유치원 인근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탑승한 지 8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 군은 현재까지 뚜렷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등원 버스에 탑승했던 B 군은 찜통더위 속 실내온도가 약 42도에 이르는 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 하던 준비를 위해 차량을 둘러보던 버스기사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아동 안전 관리의무 소홀·유치원 생활관리 부적절·무단 학급중설 및 시설변경·유치원 운영 위원회 운영 부적절 등을 이유로 유치원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

기했다.

1심은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 위반 행위의 범위와 정도, 이로 인한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하면 해당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처분 사유 중 일부는 A 씨가 관련 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확정일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지난해 1월 광주지법 형사 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당시 유치원 인솔 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주준정 기자

日 폭우로 최소51명 숨지고 3명 중태

지난 5일부터 일본 서부 지역에 집중된 기록적인 폭우로 현재까지 최소 5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NHK가 8일 보도했다. 현재까지 생사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48명으로 집계됐다.

평년 7월 강수량의 1.5배에서 2.5배 가량의 비가 내릴 동안 쏟아졌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기후현 구조시의 경우 강우량이 1042mm를 기록했다. 에히메현 시코쿠쿠오시는 736.5mm, 히로시마시는 418mm의 비가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시간당 100~11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다.

폭우는 산사태를 일으켜 수습자의 사상자를 냈다. 히로시마현 지역에서 만 현재까지 23명이 숨졌다. 에히메현에서 18명, 오카야마현 등 기타 지역에서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재 3명이 중태에 빠져 있고 48명은 생사를 알 수 없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곳곳에서 홍수 피해도 잇따랐다. 침수 피해가 심각한 곳에서는 5m까지 물이 차올랐다. 일부 지역은 침수와 도로 단절로 고립됐고, 단전·단수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이 홍수와 산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해 경보를 발령했지만 강제 대피 명령은 아니었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커졌다.

현재까지 4721명의 시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자위대와 경찰 소방당국은 4만180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총리실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긴급 각료회의를 열어 인명구조에 우선순위를 정한 뒤 신속하게 구조대를 파견하라고 지시했다.

마약 빛에 아들 판美 텍사스 엄마 체포

마약 빛을 갖기 위해 7살 아들을 2500달러(280만 1250원)에 팔아 넘긴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엄마가 지난 주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텍사스주 공공 안전부가 발표했다.

코퍼스크리스티 폴리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주 경찰은 코퍼스 크리스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에스메랄다 가르사(29)의 아들을 그 돈을 내고 샀다고 말한 뒤 그녀를 체포했다.

가르사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 빛을 지게 되자 그 여성에게 500달러에 아들을 넘겨 준 뒤에 남은 빛을 탐강하고 추가 700달러를 현금으로 받는 등 총 2500달러를 정산했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마약수사반은 코퍼스 크리스티에 대한 마약 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이 7세 남자를 발견했다. 이들은 두 살짜리와 세살짜리 아기도 판매 흥정이 진행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라크 모술서 시신 5200구 이상 발굴

이라크 서부의 격전지 모술 시의 무너진 건물 아래 깔려있던 시신 5200구를 넘었다고 이 지역 관리들과 민방위 경찰이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모술시청의 라이스 자이니는 지난 몇 달 동안 발굴해서 수습한 시신의 수가 5228명분이었으며 여기에는 민간인 2658명과 IS무장세력의 257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신화통신에 밝혔다.

“오늘(5일)도 우리는 모술 시내 구시가지 중심가인 수완에서 건물 잔해 밑에 묻혀있던 신원미상의 시신 6구를 발굴했다. 아마 무너진 빌딩의 잔해 아래에 500~700명은 더 파묻혀있을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IS 대원의 시신들은 신원확인을 거쳐서 별도의 묘지에 매장할 것이라고 자니는 설명했다. 그는 시내의 모든 빌딩들이 다 무너졌고 일부 지역은 아예 광경해졌는데도 발굴을 위한 특수 장비가 전혀 없어서 시신을 파내는 일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모술 민방위대의 라비 이브라힘 부대장은 구시가지 중심가에서 수습된 민간인 유해가 2658명에 달하지만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날로부터 벌써 10개월이 지나 시신들이 심하게 훼손, 부패되었다고 말했다.

모술 시내 구시가지는 그 동안 진압군의 탈환작전과 IS 무장세력의 완강한 저항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도로변 폭탄과 지뢰, 빌딩들에 설치된 부비 트랩등으로 엄청난 인명 희생이 뒤따랐다. 지금도 수 천 명의 민간인들은 IS 통치하에 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

이 번에 발굴된 시신들은 IS대원과 그들 가족, IS가 피난을 금지했던 일반 시민들의 것들이라고 민방위대는 밝혔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해 7월, 거의 9개월동안의 치열한 교전으로 IS의 교두보였던 모술 시내의 반군을 소탕했다며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의 탈환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로깅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말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